

### ‘태종 이방원’ 대하사극 부활 시동

5년 만 KBS 대하드라마  
8회 시청률 10.2% 돌파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시청률 10%의 벽을 깼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 방송된 ‘태종 이방원’ 8회 시청률은 10.2%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에 방송된 6회에서 6.7%로 최저점을 찍은 뒤, 7회 7.4%, 8회 10.2%로 올라가며 다시 상승궤도에 안착한 모양새다.

전날 방송에서는 이방원(주상욱 분)이 개경을 비운 사이 자신의 입지를 넓히며 이씨 가문을 위협하던 정몽주(최종환 분)가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정도전(이광기)으로부터 왕위에 오를 것을 재차 제안받은 이성계(김영철)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라’는 신덕왕후 강씨(예지연)의 조언으로 인해 고민에 빠지는 모습이 담겼다.

5년 만의 KBS 대하드라마로 방영 전

부터 관심을 모았던 ‘태종 이방원’은 초반 이방원의 인간적 면모에 집중하면서 주상욱의 감정 연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좀처럼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아울러 기존 작품에서 그려졌던 이성계, 이방원 등과 달리 좀처럼 야심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들에 답답함을 느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총 32부작의 다소 짧은 길이로 구성된 만큼 기존 대하사극보다 압축된 전개를 보여주면서 빠른 전개 양상에 익숙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이씨 가문과 정몽주의 갈등을 기점으로 극의 기승전결이 살아나는 모양새다.

한편 전날 방송된 TV조선 토일드라마 ‘영글’은 5.2%-6.3%(비지상과 유료가구), SBS TV 일요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는 1.5%의 시청률을 보였다.

또 최종 컷플 선택이 그려진 MBN 예능 ‘돌싱글즈 2’는 5.5%(비지상과 유료가구)로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영화 ‘전장의 피아니스트’. /찬란 제공

## 생과 사의 갈림길에 흐르는 선율

세영희

유일한 희망 피아노 찾아 떠나는 여행  
시리아 배경 전쟁 참사 담아...6일 개봉

〈전장의 피아니스트〉

부서진 건물 지하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한 시리아의 세가. 20대 피아니스트 카림(타렉 야쿱)은 실려 온 부상자가 치료받는 동안 그의 안정을 위해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한다.

음악마저 금지된 시리아를 떠나 유럽에서 계속 연주하고 싶은 카림은 어머니의 유산인 피아노를 팔아 여비를 마

련할 계획이었지만, 카림의 거처에 들이닥친 IS는 피아노를 향해 총알을 퍼붓는다.

어떻게든 피아노를 고치고 싶었던 카림은 람자라는 도시에 같은 모델의 피아노가 남아있다는 정보를 얻고 홀로 무모한 여행을 떠난다.

도시는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무너져내렸지만 일상이 된 폭격과 총성 속에서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 사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놀이를 한다.

팔 물건도,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늘 가게를 정리하고 단장하는 상점 주인처럼 생의 의지를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카림의 사촌도 유학을 꿈꾸며 토폴 공부를 하고 있다.

카림이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은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울려 퍼진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시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전장의 피아니스트’는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담기 위해 IS의 근거지이자 격전지였던 이라크

모슬과 레바논을 오가며 촬영했다.

레바논 출신인 지미 케이루즈 감독이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학생 아카데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학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단편 ‘녹인 인 블랙’(2016)을 장편으로 만든 작품으로, 2020년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에 선정됐다.

‘잉글리쉬 페이스트’(1997)로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음악상을 받은 레바논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가브리엘 야레가 음악을 맡아 다시 한번 아카데미에 도전한다. 영화는 음악상과 함께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후보에도 올라 있다.

오는 6일 개봉. 상영시간 110분. 12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개봉 14일만...3주째 정상

‘스파이더맨:노웨이홈’이 3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지키며 누적 관객 600만명을 돌파했다.

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지난 주말 사흘(12월 31일~1월 2일) 동안 70만5,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65.1%)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5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607만 4,000여명을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흥행 성적을 경신했다.

‘스파이더맨’은 개봉 14일 만인 지난 달 28일 누적 관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팬데믹 확산 직전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475만명)을 제치고 2020~2021년 최고 흥행작에 오른 바 있다.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가 20만 8,000여명(19.2%)의 관객으로 2주째 2위를 지켰다. 지난달 22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77만6,000여명이다.

박재홍 감독의 로맨스 영화 ‘해피 뉴 이어’가 11만3,000여명(10.2%)의 관객을 모아 3위에 올랐다.

지난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은 전주(176만8,000여명)보다 38% 줄어든 109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위아이 김요한, 솔로활동 나선다

10일 음반 ‘일루전’ 발표

그룹 위아이의 김요한(사진)이 오는 10일 솔로 미니음반 ‘일루전’(Illusion)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위엔터테인먼트가 3일 밝혔다. 위엔터테인먼트는 ‘일루전’의 콘셉트 포토를 이날 공개했다.

위엔터테인먼트는 “‘일루전’은 환상 또는 환각이란 의미대로 모두가 꿈꾸는 환상을 시크함과 몽환적인 멋으로 그려낸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김요한은 음반에서 타이틀곡 ‘디저트’

(DESSERT)를 포함해 ‘셀피쉬’(SELFISH), ‘저공비행’ 등 총 3개 트랙의 랩 메이킹에 참여했다.

배우로도 활약하는 김요한은 지난달 31일 KBS ‘2021 연기대상’에서 ‘학교 2021’로 신인상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예능, 넷플릭스 첫 10위권 진입

한국판 ‘투 핫’ 연애 리얼리티 ‘솔로지옥’ 인기몰이  
‘오징어 게임’ 순위권 밖...우주 SF ‘고요의 바다’ 5위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0위 안에 진입했다.

3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파트를’에 따르면 ‘솔로지옥’은 전날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 10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1위에 올랐고, 홍콩과 태국에서 2위, 말레이시아와 대만에서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솔로지옥’은 싱글남녀들이 ‘지옥도’라고 불리는 무인도에서 생활하다 커플이 되면 ‘천국도’로 불리는 초호화 호텔에

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짜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지난 18일 1·2화가 공개된 이후 꾸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솔로지옥’은 총 8부작으로 매주 토요일 2회차씩 공개되며, 지금까지 6화까지 공개됐다.

여름날 해변을 배경으로 촬영된 ‘솔로지옥’은 한국판 ‘투 핫’으로도 불린다. ‘투 핫’은 무인도에 갇힌 남녀가 솔직하고 뜨거운 데이트를 즐기는 미국 예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솔로지옥’은 무인도에 지어진 세트장과 고급 호텔 등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며 ‘환승연애’, ‘돌싱글즈’, ‘나는 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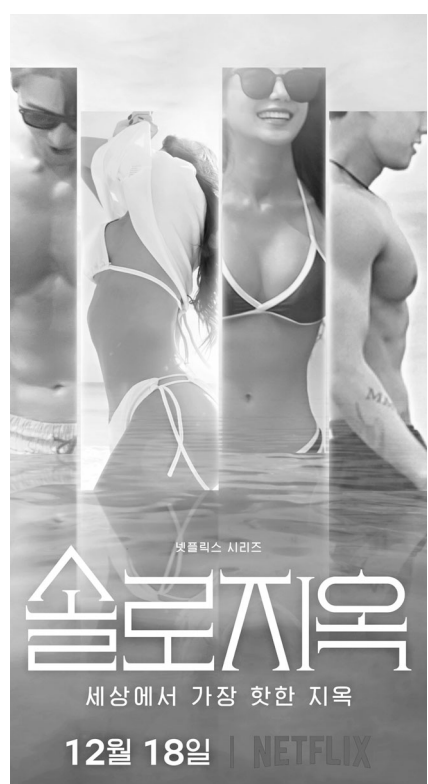
로’ 등 기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셜미디어(SNS) 팔로워 100만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 프리지아(본명 송지아) 등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지닌 출연진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K-드라마 ‘열풍을 몰고 온 ‘오징어 게임’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날 기준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1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8일 공개 하루 만에 4위로 순위권에 진입한 이후 106일 만이다.

한국 첫 우주 SF 시리즈 ‘고요의 바다’는 공개 직후 7위에서 3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지만, 연말연시 ‘코브라 카이’, ‘위쳐’, ‘에밀리아, 파리에 가다’ 등 새로운 작품들이 공개되면서 5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 /넷플릭스 제공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4일 (음력 12월 2일)

<p><b>子</b></p> <p>48년생 기대와 다른 결과가 실망스럽다. 60년생 예정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72년생 대세를 좇아 가라. 84년생 이미 정해진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p>	<p><b>丑</b></p> <p>49년생 일과 가정 모두가 순탄하다. 61년생 중간에 고비가 있겠지만 결과는 좋겠다. 73년생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85년생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p>	<p><b>寅</b></p> <p>50년생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62년생 뜻밖의 술과 고기가 생긴다. 74년생 재주를 발휘하고 존경을 받는다. 86년생 갈등을 솔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p>	<p><b>卯</b></p> <p>51년생 이해하고 양보하면 허물이 없겠다. 63년생 마지막까지 믿을 사람은 가족뿐이다. 75년생 의리를 지키면 보답을 받는다. 87년생 노력하면 된다.</p>
<p><b>辰</b></p> <p>52년생 할 말은 하고 살자. 64년생 마음만 급하지 일의 진척이 없다. 76년생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88년생 합리적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 말라.</p>	<p><b>巳</b></p> <p>41년생 자신과 과련 없는 일에 휘말리지 말라. 53년생 잘난 척하면 미움을 받는다. 65년생 절대 뒷사람과 다투지 말라. 77년생 싱글은 내사랑을 만나다.</p>	<p><b>午</b></p> <p>42년생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한다. 54년생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다. 66년생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78년생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p>	<p><b>未</b></p> <p>43년생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라. 55년생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하다. 67년생 가족을 위해 한 번 더 참자. 79년생 명분 없는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p>
<p><b>申</b></p> <p>44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56년생 공든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68년생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라. 80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p>	<p><b>酉</b></p> <p>45년생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청춘이다. 57년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69년생 모든 일에는 응당한 대가를 치워야 한다. 81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p>	<p><b>戌</b></p> <p>46년생 욕심을 줄이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58년생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 70년생 마음은 바쁘고 몸은 피곤하다. 82년생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p>	<p><b>亥</b></p> <p>47년생 첫인상에 속지말라. 59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71년생 이번에도 참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이롭다. 83년생 최종 결과는 만족스럽겠다.</p>